민간 수영장 옆에 또 수영장 건립 추진

나주시 '중복투자' 논란

"적자운영 불가피 … 절약 방안 모색해야"

나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업자와의 중복 투자로 적자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는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삼영동 174-15번지 일대 (구 영산포역) 7천200여㎡부지에 국민체육센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타에는 25m 길이의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업체가 송월동 744-28번지 일대 1만3천여㎡에 1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을 비롯한 대규모 물놀이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적자 운영을 피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의회 김판근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공익시설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준공이후 매년 적자운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강진군의 경우 군 직영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흥군도 매년 6천여만원의 손실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례 산동면 전통작물 테마공원 조성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온천지구 내에 옛날 농촌 들녘을 연상케하는 토종 전통작물 테마공원이 최근 조성됐다.

산동면 전통작물 테마공원은 온천 관광단지내 1.5ha에 요즘 농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조롱박과 수세미, 조, 기장, 수수 등 10여종의 전통작물이 심어져 있다.

또 해바라기와 초롱꽃, 설악초 등 시골집 뜰에서나 볼 수 있는 전통식물과 우리나라 지도, 태극기 모형의 국화 꽃밭도 가꿔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호박〈사진〉과 수세미가 탐스럽게 영글어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담양 죽녹원 전망대 위치 잘못됐다"

높이 낮아 대나무 숲 조망 불편

지난 4월 준공된 담양 죽녹원 전망대가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2004년 말 부터 죽녹원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근 성인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키로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나 토지 소유자인 향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입구쪽 야외무대 옆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그러나 3억3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4월 말 완공돼 선을 보인 전망대는 높이가 20여m에 불과해 주변 전경을 조망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입구에 건설돼 죽녹원의 자랑거리인 대숲을 가로막아 전망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 일대에 쉴 공간이 없었으나 전망대 설치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야외 공연과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발모효과 기능성 물 생산 나주시, 업체와 투자협약

나주시가 임상실험(?)을 거친 뒤 발모에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 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나주시가 최근 협약을 맺은 업체는 기능성 물인 '팔모수'를 생산하는 '사이언스 워터'(대표이사·이팔진·45).

나주시는 부지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투자유치인 만큼 생산제품의 성격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 공무원을 상대로 시제품 체험단을 운영, 80%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협약효력이 발효토록 명시했다.

탈모가 심한 공무원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앓고 있는 자녀 등 20여 명이 시제품 체험에 참가했다.

3개월 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자 임대산단 3만 3천여㎡ 제공과 지역민에 대한 할인혜택, 지역 내 클리닉센터 건립 등을 조건으로 최근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내년 초 50억 원을 들여 본 공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며 공장 건립에 앞서 나주 시내에 클리닉 센터 2곳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정남진 토요시장 '추억만들기'

민물고기 잡기·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이벤트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9월 1일까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정남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뱀장어와 메기 등 각종 민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천연염색하기, 허수아비·제기·미니원두막 만들기, 지게 져보기, 대나무 물총놀이 체험장도 마련된다.

또 장수풍뎅이 생육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 전시장이 운영되며, 특히 유치면 반월리 장수풍뎅이 마을에서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장수풍뎅이 생태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줄배타기 체험과 떡메치기〈사진〉, 도자기 빚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돼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국내 최대 쌀 가공공장 건립

대선제분(주), 490억 투입 함평 학교면에 착공

국내 최대 규모의 쌀 가공식품 공장이 함평에 들어선다.

대선제분㈜은 26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평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공장 신축 부지에서 '대선제분 함평공장'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대선제분㈜은 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지역 등 7만 6천㎡ 부지에 쌀 제분은 물론 떡, 제과, 제빵, 제면 등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3월께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전체면적 1만 1천75㎡ 규모로 내년 3월 완공되면 함평군 전체 연간 쌀 생산량의 58%인 2만 8천여t의 쌀을 소비해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어주게 됐다.

또 100여 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쌀가공 식품 원료인 무화과와 단감, 석류 등 원예작물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30억 원 이상의 주민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의료원장 김상민씨

신임 강진 의료원장에 병원 전문 경영인 김상민(61·사진)씨가 임명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6일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비 의료인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씨를 원장에 임명했다.

신임 김 원장은 영암 출신으로 목포고, 조선대를 거쳐 강원 태백중앙병원 행정부원장, 산재 의료관리원 기획국장, 대전중앙병원 행정부원장, 안산중앙병원장, 경기요양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해남 명물 '守城松' 후계목 무럭무럭

郡, 종자 채취 파종 1천여그루 키워

해남의 명물이자 천연기념물 제 430호인 수성송(守城松·사진)의 후계 목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청 앞 광장에 있는 수령 500년의 수성송 종자를 채취한 뒤 지난 3월 파종, 현재 1천여 그루가 20㎝ 크기로 성장했다.

군은 이들 후계목을 3~4년 더 키워 수성송과 똑같이 수형을 만든 뒤 상품화하기로 했다.

또 땅끝 등 유명 관광지 주변에 후계목을 심어 을묘왜변 때 왜군에 맞서 성(城)을 지킨 해남인의 기상을 널리 알려 나갈 방침이다.

수성송은 조선 명종 10년(1555년) 왜구에 맞서 달량진(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을 지켜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해남 현감인 변협이 동헌 앞 뜰에 심은 해송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